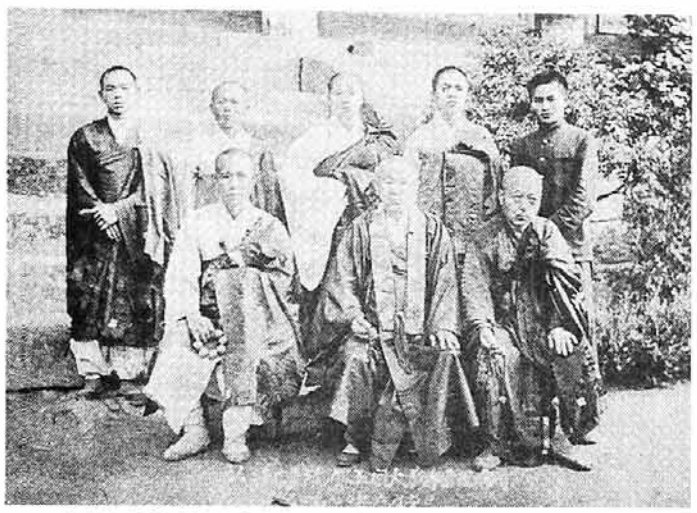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삼독심 착한마음 가린다



◇1943년 남양주 봉선사 총법강원 제5회 대교과 졸업 기념사진. 사진 앞줄 맨 오른쪽 운허스님, 뒷줄 왼쪽 끝에 서있는 벽산스님.

"옛날엔 공부 하려고 소임 마다했는데 요즘은 자리놓고 다투니 격세지감"

는 바다에서 윤회하고 전생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백옥(白玉)과 같이 걸림이 없는 무가애고를 가지고 살아야하고 그래서 걸림이 없으면 무유공포가 돼 공포증을 없애야됩니다.

나는 교학공부에 열심인 편이었습니다. 장성 백양사, 양산 통도사, 금강산 유점사, 남양주 봉선사를 두루 거쳤는데 그 당시는 어느곳을 가던지 대강백과 선지식들이 참많았어요. 그러니 시국은 어수선해도 한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지요. 곳곳의 큰스님을 찾아 법거량을해야 하니까요.

해안스님 만암스님 경봉스님 운허스님 구하스님 등 그분들의 몸짓 하나 하나, 말씀 한구절 한구절이 모두 공부였습니다.

백양사에 계시던 만암스님은 도인이셨어요. 그래서 백양사 강원에 있으면서도 새벽3시에 항상 만암스님 처소로 가서 삼배를 올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항상 가보면 가사와 장삼을 입으시고 곧은 자세로 참선삼매에 들어계셨어요. 그것은 만암스님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공부였습니다.

도 한때 구하스님 시봉을 했는데 스님께서 하루는 나를 부르시더니 "너와 다시 못만날 것이니 이 것을 가지고 가라"며 법성게 병풍설을 써주셨요. 옛날에는 큰스님들이 이러하셨습니다. 수행자의 올때와 갈때를 아셨지요. 오직 공부로 보여주시며 후학들을 따끔하게 경책했지요.

없어서 제대로 먹지는 못했지만 서로들 법탐은 너무도 거세서 좋은 법(法)은 서로 먹으려고 했어요. 그당시는 주지같은 소임도 공부하려고 서로 안하려해서 억지로 밀려서 하던일이 많았지요. 요즘은 주지나 종단요직을 서로하려고 다투는데 격세지감이 들어요. 승풍을 바로 세워야 불교가 흥합니다.

통도사로 가서 공부할때는 재미있는 일도 많았지요. 송광사에서 오신 소산스님(입적) 전등사에서 오신 성호스님과 작당해 방학이면 경상남·북도의 모든 사찰과 기도터를 두루 돌면서 만행했지요. 이후 금강산에가서 1만2천봉과 8만암자를 두루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빼어난 경치가 하도좋아서 유점사 선방에 눌러앉아 몇철을 공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금강산의 비경이 눈에 선한데 하루 빨리 통일이 돼서 다시한번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절실합니다.

예전에 운문이란 큰스님은 누가 법을 물으면 "떡 자시게" 하시는데서 운문병(雲門餠)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떡이나 주면서 떡먹고 가라고 하면 괜찮은데 떡은 주지도 않고 "떡 자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조주스님은 조주고불(趙州古佛) 즉 조주 옛 부처님이라고 할 정도로 큰스님인데 그 스님께 법문을 들으러가면 "차 마시게"하시니 이것이 그 유명한 조주청다(趙州淸茶)의 옛 가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널리 일체중생을 보니 모두가 여래의 지혜와 부처님의 덕상을 갖추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없이 우리 모두가 동불중생(同佛衆生)임을 깨달아야 해요. 곧 근본진리는 부처님과 중생이 한가지로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소 환경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들 지혜의 덕상을 되살리는 노력을 경주합시다.

전국의 강원과 선방을 거쳐 부안 내소사 월명암에 오래 있었지요. 지금도 사성칠현이 탄생한다는 선방으로 유명한 월명암은 그 유명한 부설거사 얘기가 전해내려오지요. 세속에 사는 거사이면서 불도를 깨달은 부설거사의 다음 게송은 유명합니다.

"물질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없어지지만 깨끗한 한생각 정각을 이룹니다"

'목무소견(目無所見) 무분별(無分別)하고 이청무성(耳聽無聲) 절시비(絶是非)라, 세상만사(世上萬事)를 도불관(徒不觀)하고 담간심불(潭看心佛) 자귀의(自歸衣)하라'

'눈으로 보는바 없으면 분별이 없고 귀로듣는 소리 없으면 시비가 끊어진다. 분별과 시비를 모두 놓아버리고 다만 부처님의 마음을 보아 스스로 귀의해야 한다.' 즉 세상만사를 다 돌아보지말고 모든 시비를 떠나 자기의 부처에게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이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한마디로 마음이 텅비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그래야만 부처님의 법을 볼 수가 있고 혜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불도를 위해서는 신심(信心)이 묘화보살 처럼 장해야돼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깊은 신심을 가지고 오직 공부해야겠다는 맑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묘화보살이 보조선사에게 말씀드리길 "제가 아니었다면 부설 그어른은 더 큰 그릇이 되셨을텐데 하고 생각하게 되니 스님을 파계시킨 죄업이 수미산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했어요. 그러자 보조선사께서는 "아니오 보살님이 부설거사를 해탈케하시었소. 깨침을 얻는 것은 그만한 발심의 계기가 따르는 법입니다"하셨습니다.

요즘사람들 계율을 잘지키다가도 잘못하면 한가지를 파계하면 금방 무너져서 허우적거리며 허송세월을 보내요. 그러면 안됩니다. 빨리 바로잡아서 정도를 가야지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불도를 이루려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첫째고 계율을 지키고 고요한 곳에 앉아 관(觀)을 해야합니다.

'이 몸뚱이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 사대(四大)가 화합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생각이라는 것도 경계에 인연하여 일어나는 허망한 것임을 알자'

그리고 일체(一切) 실상(實相)의 성품은 정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몸뚱이 많은 몸뚱이, 하나의 세계 많은세계가 다 청정하여 평등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같은 것이므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말들을 명심하세요.

아유일권경(我有一卷經)
불인지묵성(不因紙墨成)
전개무일자(展開無一字)
상방대광명(常放大光明)

나에게 한권의 경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된것이 아니다. 한 글자도 펴지 아니하여도 항시 큰 광명을 놓는다.

이것이 무엇인고? 아는 이는 스스로 광명을 놓겠지만 모르는 이는 또 다시 종이와 먹을 찾을 것이다.

정리=김원우 기자

고침 본란 144호 도선사 참회선원장 도우스님을 도선사 한주로 바로잡습니다.

나와 경전 〈24〉

능가경

박 건 주
조선대 강사

중국 선종의 선구자인 달마대사가 2조 혜가스님에게 전수했다는 〈능가경〉의 가르침은 명확하고 자세하며 산뜻하다. 특히 전체내용의 40%에 이르는 게송은 그 백미. 자심(自心)수행에 항상 지녀야 할 명구들이다.

불법은 자심수행의 길이다. 교법을 바로 이해하면 그대로가 자심수행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선교일치가 된다. 불법수행의 근본은 선오후수(先悟後修)요, 신해행증(信解行證)이며, 선교일치(禪敎一致)이다. 이는 제불공통의 성불하신 길이요, 가르침이었다. 이 가르침이 제대로 전제되지 않았을 때 잘못된 수행의 길을 가게 된다.

〈능가경〉은 위의 세가지 요건이 원만하고 수승하게 갖추어지도록 이끌고 있다. 아차하면 외도의 길을 걷게 되는 위험을 세밀하게 일깨우며, 묘각(妙覺)에 이르는 길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이 난해한 경으로 인식되고 여러 사정으로 초기 선종기를 지나서는 거의 잊혀지게 되었다. 3종 〈능가경〉가운데 앞에 나온 〈4권본〉과 〈11권본〉은 자구(字句)가 난삽하고 문리(文理)가 잘 통하지 않아 두루 읽혀지지 못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 범본과 앞의 2본을 함께 참조하여 당 중기에 가장 완벽하게 번역되어 나온 것이 〈7권본: 대승입능가경〉이니, 〈능가경〉 공부는 바로 이 본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7권본〉보다는 앞의 2본에 따라야 할 부분도 있어 세 본을 함께 대조하며 공부할 필요가 있다.

〈능가경〉은 어려운 용어도 많고 난해한 만큼 주석서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찍이 원효대사는 무려 5종의 〈능가경〉주석서를 저술한 바 있으나, 불행히도 모두 다 실전되고 말았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마음공부 교법 총망라…게송 40%

"이 경대로 실천 세상 구원" 달마부촉

리하여 수행자는 자심에서 묘각의 길이 확연해 진다.

달마대사는 일찍이 〈능가경〉을 2조 혜가대사에게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능가경〉4권을 너에게 부촉한다. 이 경은 여래심지(如來心地)의 요문(要門)이며 모든 중생을 개시오입(開示悟入)하게 할 것이다. 내가 보건대 중국에 오직 이 경이 있을 뿐이다. 이에 의지하여 실천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능가경〉은 모든 선불(先佛)께서 설한 법이며, 미묘제일(微妙第一)의 진실요의(眞實了義)인 까닭에 '불어심품(佛語心品)'이라고 한다. 아울러 '최상승선의 지침서요, 선종의 뿌리이다. 달마대사 이래 초기의 선종을 능가종이라고 한다.

〈능가경〉에는 중관(中觀)과 유식(唯識)의 핵심교법이 정치하게 설해지며, 일체법이 자심소현(自心所現)이고 유심(唯心)임을 요달하여 무생법인을 성취하고 여환삼매(如煥三昧)와 금강유정(金剛喩定)을 거쳐 일체의 삼매도 벗어나 묘각에 이르는 길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다.

〈능가경〉은 그 중요성에 비해 그간 내가 〈능가경〉을 처음 접한 지 어언 18년이 되었다. 내가 처음 읽은 〈능가경〉은 김재근씨가 번역한 〈대승입능가경〉(덕문출판사, 1978)이었는데, 이 역본은 뒤의 게송품(경문전체의 30%분량)이 빠져 완역이 아니었다. 3종의 〈능가경〉을 함께 대조하지 않은 듯하고, 주해가 되어있지않아 따르기 어려운 해석이 있었다. 5년전부터 주변의 불교모임에서 〈능가경〉을 강독해 온 나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 최근에 〈여래심지의 요문-대승입능가경〉(능가산방 1997.8)을 출간하게 되었다.

선종이란 교를 멀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후대의 일반적인 풍조를 바로잡고, 진정한 최상승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능가경〉을 전한 달마대사의 뜻이 다시 천명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능가경〉공부를 통하여 불자여러분들은 달마대사가 왜 이렇게 모든 교법을 총망라한 모습의 이 경을 그렇게 강조하였는가를 알수 있을 것이다.

차라리 아견(我見)을 수미산처럼 일으킬지언정
공견(空見)을 일으켜 증상만(增上慢)을 품지 말라.(〈대승입능가경〉 무상품)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
반 야 심 경

금강경, 법구, 각종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入試家庭의 幸運을 위하여 승진·사업번창의 幸運을 위하여 만성지병 투병환자의 염원적 쾌유를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송 사경정근하세요. 神秘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의지처입니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모집 (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 선착순 한정본(품)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전국 佛子가정에 1本씩 보시합니다.(단체주문은 사절)
※모사본에 속지 마세요.

■ 작가약력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서울미술제 심사위원장(서예)
·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초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장작미술 대상수상
· 중국 대만 화교청년 고등부 서법최호대회 심사위원장
· 대한민국 80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목(약70만점)조사논문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예술원 원장

韓國佛敎文化 藝術院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242-0255 (야) 216-0307

법화경 특강(광주)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광주 전남지역 불교인구의 저변확대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화삼부경〉 무료특강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0월 24일 오후 2시~4시
2. 장소 : 광주 안보회관 5층 대강당
3. 동참 : 불교정법에 관심있는 모든 분
4. 혜택 : 참석자 선착순 200명에는 법화삼부경 (싯가 3만원) 1권씩과 佛字 ·액자용 1점씩을 드립니다.

■ 연 락 처 ■
영광 진제암 : 0686-53-9121
011-621-6966 · 015-638-6966

UN · IAEWP · KOREA MONK ACADEMY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최 광 영 (공덕)
(053)952-8711 · 017-501-8711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 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알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회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